

『실낙원』(Paradise Lost)에 나타난 하나님 변증

신 현 호(백석대 어문학부 영어학 전공)

I

본 논문의 목적은 밀턴(John Milton, 1608-1674)이 자신의 장편 서사시 『실낙원』(Paradise Lost)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변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밀턴은 『실낙원』의 서두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복종으로 인해 인류에게 죽음과 고통을 가져오고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해 인간이 죄로 인한 멸망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한 뒤 이 작품을 쓰는 의도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정당함을 변증하는데 있다고 밝힌다.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밀턴은 『실낙원』에서 아담의 타락과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사시 형태를 택해 에덴동산, 지옥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공간과 천지창조 이전부터 그리스도 탄생에 이르기까지 장대한 시간을 취급하며 치밀한 구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 계신 섭리가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고에서는 『실낙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묘사되는지 살펴본 뒤 『실낙원』 11권과 12권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정당성이 어떻게 변증되었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존 밀턴(John Milton, 1608-1674)은 청년시절 한때 성직자의 길을 가려고 하였으나 당시 교회 지도층의 부패를 보고 교역자의 길을 포기하고 시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그 소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상상적 문학을 통하여 기독교적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였다. 밀턴의 할아버지는 옥스퍼드 부근에 살고 있던 로마 카톨릭 신자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프로테스탄트로 전향한 후 런던으로 나와 법률 공증인이 되어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하였으며 장로교 목사를 가정교사로 두고 어린 밀턴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켰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기독교 전통의 교육을 받은 밀턴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작가 인생 전부를 통해 작품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절친한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을 애도하는 "리시더스(Lycidas)"는 밀턴의 초기 작품으로 걸으로는 목가적 전통에 따른 고전적 신화의 인유로 가득 차 있으나 청교도적인 절제된

1) John Milton. Paradise Lost. ed. Scott Elledge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1975.) p.7 밀턴은 『실낙원』 서두 소위 서사시 전통에 따르는 invocation 부분(1권 1행-26행)에서 이 작품을 쓰는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I may assert Eternal Providence, / and justify the ways of God to men." 앞으로 작품의 인용은 이 책에 근거하여 권과 시행만 명기한다.

시행과 엄격한 운율 안에서 영생, 천국,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대속 등이 주제로 취급되고 있다.

밀턴은 초기에 통일적 교회통치를 주장하는 장로파 입장에 서있었지만 1640년대 중반부터 개별교회의 자치권을 존중하는 독립파의 입장에 서게 되며 1649년 크롬웰의 라틴어 담당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청교도적 신앙을 그의 문학, 정치, 도덕 및 사상의 기본으로 하여 일생을 보내게 된다. 청교도 혁명과 영국 국교회의 붕괴, 그리고 왕정복고 등의 정치, 종교적 대 격동기에 그는 언제나 청교도주의(Puritanism)의 격렬한 옹호자로서 활동하였다. 그에게 있어 청교도 정신의 실현 근거는 이성에 입각한 인간의 자유에 있었으며, 그가 해석하는 인간 타락의 원인은 인간의 자유의 지에 있는 것이다. 밀턴은 인간 타락의 이유를 정신적이고 인간 내적인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도를 보이며 하나님의 예표와 섭리를 교훈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0년의 긴 세월에 걸친 시작(詩作)준비과정과 작가가 겪은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실낙원(Paradise Lost)』은 작품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지닌 정당성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작품은 총 12권 11,000여행으로 되어있는 서사시인데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천지창조와 아담과 하와의 타락 및 낙원추방 이야기 그리고 「요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에서의 전쟁에 대한 예언적 기록을 소재로 삼고 있으며 많은 성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밀턴은 칼빈주의적 신앙에 기초하여 이 작품을 쓰고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기독교적 세계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밀턴은 『실낙원』의 서두에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복종으로 인해 인류에게 죽음과 고통을 가져오고 결국은 그리스도로 인해 인간이 죄로 인한 멸망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한 뒤 이 작품을 쓰는 의도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정당함을 변증하는데 있다고 밝힌다.(Hughes 6)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밀턴은 『실낙원』에서 아담의 타락과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전달달달달달한 수단으로 서사시 형태를 택해 지옥, 에덴동산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공간과 천지창조 이전부터 그리스도 탄생에 이르기까지 장대한 시간을 취급하며 치밀한 구조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심과 살아 계신 섭리가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고에서는 『실낙원』 11권과 12권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정당성이 어떻게 변증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낙원』 11권과 12권은 작품 전체의 끝부분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낙원을 떠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미카엘(Michael)에게 그 뜻을 전달받는다. 미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믿음과 선행을 쌓고,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추악한 인간의 미래상을 환시와 예언으로 보여주면서 아담이 저지른 원죄와 그의 자손들이 지은 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위로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아담과 이브는 낙원을 떠나는 슬픔에 잠시

잠기나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들을 맡기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낙원을 떠나 새로운 인생의 방랑길에 나선다. 밀턴은 인간의 존재양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정의와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당함을 변호하고 있다.

II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계획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는 『실낙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기본 적인 관계를 취급하고 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불순종에 계속 대응하며 시간이 경과하면 마침내 독생자 그리스도에 의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 최고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만물의 창조주이며 근원자이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늘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엄격하고 정확해서 일시적으로는 악행을 그냥 버려두시지만 그 형벌을 완전히 말소해 버리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언제든 악은 그 대가로 형벌되며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정의는 불순종에 대한 형벌로 인간의 죽음을 정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비는 죽음의 형벌을 영원한 구속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외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속을 통하여 자비와 정의를 조화시키신다.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밀턴은 하나님의 음성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에 나는 두 가지 좋은 선물인
행복과 불멸을 주어 그(아담)를 창조하였다.
전자는 어리석게도 잃어버리고
후자는 단지 비통함을 영속하는 데 도움이 될 뿐
내가 죽음을 예비하기까지는. 그러므로 죽음이
그의 마지막 구제책이 되고, 혹독한 고난 가운데 시련 받으며
믿음과 신앙의 과업으로 순화된 삶 이후에
의로운 자의 부활로 눈뜨게 된 그를
새로워진 하늘과 땅과 더불어
두 번째 삶에 온전히 내맡긴다.

. I at first with two fair gifts
Created Him endow`d, with Happiness
And Immortality: that fondly lost,
This other served but to eternize woe;
Till I provided Death; so Death becomes

His final remedy, and after Life
 Tried in sharp tribulation, and refined
 By Faith and faithful works, to second Life,
 Waked in the renovation of the just,
 Resigns him up with Heav'n and Earth renewed. (XI 57~66)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물로 '행복'과 '불멸'을 주셨으나 인간은 이를 상실하고 죽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죽음은 죄지은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고통을 단축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동시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어서 단련시킨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에 적합하도록 이끌어 가는 인간에 대한 최후의 구제책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설적인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책'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설적인 하나님 섭리의 정당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키므로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낙원상실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면 구원은 하나님의 예표된 의지인 것이다. 도덕적 자유원리는 밀턴이 가지는 신학사상의 중심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에게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밀턴은 『실낙원』 3권 103행에서 107행에 이르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 근본동기라고 볼 수 있는 자유 의지의 필연성을 수사가 곁들인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자유롭지 않다면 참된 충성이나 변함없는 믿음이나
 사랑을 어떻게 신실하게 입증할 수 있었을까
 나타나는 것은 단지 필요에 의해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뿐
 그들이 그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이러한 복종에서
 그들은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나는 어떤 기쁨을 가질 수 있겠는가?

Not free, what proof could they giv'n sincere
 Of true allegiance, constant Faith or Love,
 Where only what they needs must do, appear'd,
 Not what they would? What praise could they receive?
 What pleasure I from such obedience paid, (III 103~107)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랑이 완전히 무의미하며 순종에도 아무런 뜻이 부여되지 않는다. 강제에서 오는 복종은 굴종이요, 심리적인 면에서나 윤리적인 면에서 마음에 없는 허식이며 노예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온갖 도덕에 앞서서 먼저 자유의 기능이 선결문제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밀턴은 아담의 거룩한 얼굴에 빛나는 창조주의 모습을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이 넘쳐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IV 291~295)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원초적으로 완전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타

락 이전의 사람의 원래 상태가 완전했다면 어떻게 타락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 의문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밀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죄 없고, 순진하고, 바르고, 순결하게, 즉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완전은 절대적이거나 불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완전하게 만드셨으나 불변한 것으로 만드시지는 않았으며,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으나 참고 견디는 것은 인간의 힘에 맡기신 것이다.(V 524~526) 지음 받은 인간의 완전성은 하나님의 완전성과는 달리 상대적이며 조건적이다. 그리고 그 조건은 단 한 가지 닻적이며 심겨진 온갖 과실을 맛보되 생명나무 곁에 심어진 지식의 나무(Tree of Knowledge) 열매만은 맛보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 하는 것 이었다.(IV 420~424)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면 그 완전성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고, 만일 불순종하여 그 금지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하게 만들어 졌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순종을 나타내는 유일한 징표였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반면에 한 가지 손쉬운 충성, 곧 순종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것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세워진 사랑의 법이기도 했다. 이 사랑의 법을 어기거나 떠날 때 창조자의 질서는 파괴되고 그 법을 세운 자에 대한 불순종이 되므로, 이 사랑의 법을 버린 자는 완전성을 유지할 수 없고 마침내는 높은 곳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V 535~541)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법을 지킬 것인지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를 여부는 순전히 인간의 자유의사에 맡기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었을 때, 또한 선택의 자유도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순종은 이성적 선택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참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이성적 선택에 의한 순종을 통하여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고 어떤 강제나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유라면 참된 자유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룩한 얼굴에는
 그들을 만드신 영광스런 창조주의 형상과, 진리와 지혜
 엄격하고 순결한 신성이 빛나기 때문이다.
 엄격하지만 참된 자유에서 나온
 , for in their looks Divine
 The image of their glorious Maker shone,
 Truth, wisdom, sanctitude severe and pure,
 Severe, but in true filial freedom placed; (IV 291~294)

인간의 참된 권위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음으로 인해 야기되며, 이것으로 인해 인간은 비로소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존재가 되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만물의 영장이 되고 우주의 창조자, 역사의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한 것은 설

사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고 낙원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정당함을 입증한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은 선택을 잘못한 인간에게 귀결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의에 속하도록
만들어졌기에 그들의 창조주나 그들의 창조
또는 그들의 운명에 대해 비난함은 부당하다
마치 예정이 그들의 의지를 지배하여
절대적인 하늘의 명이나 빼어난 예지로
처리한 것 처럼. 저희들 반역은 스스로
정한 것이지 나는 아니다.
They therefore as to right belonged,
So were created, nor can justly accuse
Their maker, or their making, or their Fate;
As if Predestination over-ruled
Their will, disposed by absolute Decree
Or high foreknowledge; they themselves decreed
Their won revolt, not I; (III 111~117)

밀턴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으므로 타락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자유의지란 필연과는 독립된 개체이다. 만약 자유의지가 필연의 조그마한 그늘에 가리워져 인간의 의지에 거슬리도록 강제 당한다면 인간은 필연의 부속물이 되는 것이요 모든 책임은 그 자체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한 것은 스스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인격의 바탕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예견하고 계셨지만 그 예견이 인간의 타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인간은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로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하여 드디어 그 악의 노예가 되어 버린 것이다.(III. 122~124)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탄에게 유혹되어 하나님의 계율을 어길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셨다 하더라도 선택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인간의 낙원상실은 하나님의 본의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예견하시고 운명의 주인이시지만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요 인간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타락이 하나님의 섭리와는 무관함이 입증되었지만 인간의 타락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가져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섭리 안에서 정당하게 역사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하나님은 무한한 선하심과 은혜로 인간을 악에서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하신다.

아 무한한 선, 광대하신 선하심
 이 모든 선을 악에서 배출하시고
 악을 변화시켜 선으로 만들다니
 처음 창조 때 어둠에서 빛을 가져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다. 나는 의혹에 가득 차 서 있다.
 내가 범하고 내가 야기시킨 죄를 이제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더 많은 선이 우러나와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더 많은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노 넘어
 그 은혜 충만하심을 기뻐할 것인가.
 O goodness infinite, goodness immense!
 That all this good of evil shall produce,
 And evil turn to good; more wonderful
 than that which by creation first brought forth
 Light out of darkness! full of doubt I stand,
 Whether I should repent me now of sin
 By me done and occasioned, or rejoice
 Much more, that much more good there of shall spring,
 To God more glory, more good will to Men
 From God, and over wrath grace shall abound. (XII 469~478)

아담이 금단의 과일을 먹은 것은 창조물 중 유일한 이성적 동물로서의 범법행위
 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좌절시킨 것으로 그 죄악은 크다. 이 행위 때문에 전
 인류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러나 이 타락이 없었던 거라면
 그리스도의 성육과 구원은 없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함이 실천되어 인류에게
 전해질 수도 없었다. 역설적이지만 낙원상실은 반드시 후회스러운 것은 아니다. 왜
 냐하면 구원의 최후상태 즉 인류역사의 종말이후의 영원의 세계는 첫 에덴동산 보
 다 더 복되고 도덕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다. 아담과 그 후손들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증거 한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은총은 최대의 것이며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도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죽음에 해당하는 악을 이기고 선을
 가져올 것을 미리 예견하셨다. 악 그 자체는 선은 아니지만 악의 존재해야 선함이
 의미가 있다. 만약 악이 없어야 했다면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타락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와 인간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죄를 범했을 때 바로 그들의 자유의지가
 창조주의 뜻에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은 벌하기로 예정한 자를 벌하고 은총을 베풀
 기로 정한 자에게는 구원을 주기로 예정하심으로 악을 선하게 이용하셨다. 때때로
 우리들은 ‘만약 타락이 없었더라면 이직도 우리가 낙원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
 지 않겠는가?’ 반문한다. 그러나 밀턴은 두 번째 낙원, 즉 천국이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한다. 만약 타락이 없었더라면 에덴은 인류 모두가 살 수 있

을 정도로 넓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태어나기를 기다려야만 했을 지도 모른다. 결국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은총의 요인이 된 것이다. 상대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더 강화되었다. 타락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더 풍성해야 했다. 만약 타락에 의해 우리 자신을 잃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손실은 우리에게 이득이 되었고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들은 아담의 순수정보보다도 더 많은 은총을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류의 불행에 작용하여 본래의 순진함보다 더 기쁘고 쓸모 있는 것이 되게 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아흔 아홉의 의인보다도 회개하는 한 죄인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듯이 구원의 상태는 순진함의 상태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Patrides 68) 밀턴이 이해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모든 일을 계획하여 자신의 목적에 따라 창조하고 보존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타락을 자초했을 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전보다 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여 인간을 회복시킴으로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

III

『실낙원』 11권, 12권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섭리와 자비와 은총의 기록 이외에 상대적으로 죄와 그로 인한 사망, 죄악의 세계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만약 마지막 두 권에 나타난 환시들이 공포와는 별도로 행복과 승리만을 강조했다면 아담이 너무 안이하게 죄와 죽음을 받아들이어 죄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느라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감을 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는 아이처럼 달콤하고 순진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감사히 받아드려야 할 지 그 은총을 수용할 수 있기 위해 인간편에서 어떤 영웅적 행위를 해야 할 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또 아담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악에 관한 우리의 지식에서 우리는 거의 아담보다 우월함을 알게 된다. 우리와 아담사이에는 측량하지 못할 거리가 있으며 만약 『실낙원』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그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다는 밀턴의 원래의 의도를 달성하려면 이 거리는 제거되어야만 한다. 아담은 어두운 쪽의 세계가 자기와 하와의 단 한 번의 탐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는 그 결과 엄청난 죄악과 공포 그리고 죽음의 세계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도래해야함을 알아야 하고 그토록 고귀한 분이 이처럼 추악한 세상에 움으로써 비천한 신분을 취한 것에 감격해야 한다.

기도하는 말이 능숙치 못하다면, 내가
 그의 대변자로서, 그의 화해 조정자로서
 그를 대신하여 통변하겠나이다. 그가 한 모든 일
 좋은 것이나 좋지 않은 것 모두를 내게 집붙이소서. 내 공덕은
 그것을 완성하고 내 죽음은 그것을 보상하리이다.
 Unskilful with what words to pray, let me
 interpret for him, me his advocate
 And propitiation, all his works on me
 Good or not good ingraft, my merit those
 Shall perfect, and for these my death shall pay. (XI 32~36)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예언자로서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족케 하실 화목
 제물로서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중개한다. 사도 요한은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함이
 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한1서 2:1~2)

하나님은 미카엘에게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가차 없이 쫓아내되 그들이 참으로
 죄를 뉘우치면 위안 없이 보내지 말고 여자의 후손에게서 새로 시작될 새 계약을
 알게 하라는 사명을 준다.

. 왜냐하면 내가
 노하신 하나님을 기도로써 진정시키려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온 마음을 겸허히 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너그럽고 온유하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내가 본 듯하고, 호의를 가지고
 들어주신다는 신념이 생겼고, 평화가 내 가슴에,
 그리고 당신의 씨가 우리의 적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이 내 기억에 돌아왔으니
 전에는 낙심하여 생각이 안 났으나 이제
 죽음의 고통이 지나가고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 For since I sought
 By prayer th' offended Deity to appease,
 Kneeled and before him humbled all my heart,
 Methought I saw him placable and mild,
 Bending his ear; persuasion in me grew
 That I was heard with favor; peace returned
 Home to my breast, and to my memory
 His promise, that thy seed shall bruise our foe;

Which then not minded in dismay, yet now
 Assures me that the bitterness of death
 Is past, and we shall live. (XI 149~158)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에 분명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점과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기억에 되살아났음을 상기시킨다. 이 약속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라는 약속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수난을 했으나 예수는 악마의 머리를 치고 부활함으로써 악마를 완전히 패배시킨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밀턴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담을 추방시키시나 대신 예수를 보내는 자비로 공의로우시며 정당하시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인간의 죄악은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 사로잡힌 인간자신들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주장하는 밀턴은 자유와 악한 폭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말하고 있다.(Martz 184)

그에게 미카엘은 말한다. "당연하다, 그대가
 그 아들을 미워함은. 정당한 자유를
 억압하려고 조용한 인간의 상태에 이러한 고통을
 가져온 그자를. 그러나 동시에 알라,
 그대의 원죄 이래 참된 자유는
 상실되었음을. 그것은 항상 바른 이성과
 더불어 살며 갈라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이 어둡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즉시 터무니없는 욕망과
 갑자기 일어선 정욕이
 이성에서 주권을 빼앗고 지금까지 자유롭던
 인간을 노예화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내부에서
 부단한 힘에게 자유 이성을 통치토록
 허용하면, 하나님은 정당한 판단으로 그를
 밖으로부터 폭군에게 복종시키고, 그 폭군들은 종종 인간의 외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한다. 억압은 반드시 있다,
 그렇다고 억압자에게 변명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때로 백성들은 이성이라는 덕으로부터
 아주 낮게 타락하기 때문에 악이 아니라,
 정의가 거기에 치명적 저주까지 곁들여
 그들에게서 그들의 외적 자유를 박탈한다,
 그들이 내적 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To whom thus Michael. "Justly thou abhorr'st
 That Son, who on the quiet state of men
 Such trouble brought, affecting to subdue

Rational Liberty; yet know withal,
 Since thy original lapse, true Liberty
 Is lost, which always with right Reason dwells
 Twinned, and from her hath no dividual being:
 Reason in man obscured, or not obeyed,
 Immediately inordinate desires
 And upstart passions catch the government
 From reason, and to servitude reduce
 Man till then free. Therefore since he permits
 Within himself unworthy powers to reign
 Over free reason, God in judgement just
 Subjects him from without to violent lords;
 Who oft as undeservedly enthrall
 His outward freedom: tyranny must be,
 Though to the tyrant thereby no excuse.
 Yet sometimes nations will decline so low
 From virtue, which is reason, that no wrong,
 But Justice, and some fatal curse annexed
 Deprives them of their outward liberty,
 Their inward lost; (XII 79~101)

진정한 자유는 이성과 함께 결부되어 존재하는 데 인간은 원죄로 인해 이 자유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인간에게 준 자신의 형상 중 일부인 그 이성이 흐려지거나 그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조상 하와가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 한 입을 먹게 한 무절제한 욕망과 갑자기 부풀어 오른 정욕이 이성으로부터 주권을 탈취하여 인간을 정욕의 노예가 되게 한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적 오류에 의해 타락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완전성을 상실케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생각하고 지배하는 요소가 있는 반면에 그것에 지배를 받고 순종하여야 할 요소가 있다. 사색하고 다스리는 요소를 이성이라 한다면, 지배를 받고 순종하여야 할 요소는 감성이라 할 수 있다. 밀턴은 아담은 사색과 용기 즉 이성이 강하고 하와는 온순함과 우아함 즉 감성이 강하다고 주장한다.(IV 296~299) 8권에서도 아담과 하와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 데 창조의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곧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놀라움과 기쁨으로 위대한 창조주를 찬양했지만, 하와는 자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VIII 5~12 ; 40~50) 즉 아담은 이성과 지력을 통해 즉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인식했지만, 하와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듯이 오직 반사의 빛을 통해서만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밀턴은 아담은 이성이 강한 존재였고, 하와는 감성이 강한 존재였다는 것을 자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성이 감성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 존재구조의

위계질서는 무너지고 거기서 타락이 비롯되는 것이다. 9권에서 감성적 존재인 하와가 이성적 존재인 아담의 지배를 떠나 홀로 있을 때 뱀은 그녀를 유혹했고, 유혹받은 그녀는 쉽사리 그 꾀에 넘어가 급기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범하게 된다.(IX 781~791) 한편 하와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담은 그녀 없는 에덴은 황량한 숲과 같을 것이며 자신과 하와는 한 몸이라는 이라는 생각과 상실과 배반에 하와와 함께 할 것을 결심 하고 하와가 원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취하게 된다.(IX 995~998) 이것은 지극한 사랑의 행위 같기도 하지만, 다스릴 요소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요소에게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이 감성에 동화되어 마비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여 분별력을 잃고 사랑의 명령을 왜곡하므로 영혼의 위계질서는 무너지고 그로부터 죄는 싹트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결국은 다스릴 자와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의 관계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운 한 가지 금지 명령은 그 관계를 표상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그 지켜야 할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거리, 유지하여야 할 정당한 관계를 망각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그릇된 판단을 하고 창조주에게 불순종하였다. 이 불순종이 곧 타락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 결과 상대적으로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던 인간은 그 완전성을 상실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경솔함과 천박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자신을 잘 깨닫지 못하므로 정욕이 그를 기만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한번 정욕이 지배하게 되면 정신의 혼돈을 초래하고 마음의 평화는 사라지고 인간은 자유로부터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 정치적 자유마저 태에박 당하게 된다. 밀턴은 스토이학파로부터 인간 정신 내저태에있어서의 이성과 정욕의 갈등태에대한 이데아(idea)를 얻었으며 덕의 도구로서의 지식의 중요성을 확신하였다. 정욕의 힘이 자유로운 이성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심판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해 이들 인간이 상실한 내적 자유뿐만 아니라 외적 자유마저 태에빼앗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 할 때마다 진노하여 이들범죄역수의 손에 붙이고 또 이들이 뉘우치고 돌이킬 때 다시 용서해 주시고 구해주신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증된다. 밀턴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약 밀턴년간 방황한 것은 하나님태에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이 아니고 장래의 과업태에대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XII 215~220) 이것은 유대인들이 곧바로 강한 가나안(Canaan)족과 부딪쳤을 때 두려움에 굴복하여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견에 따른 정당한 방법이다.(출애굽기 13: 17~18)

미카엘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예표에 대해서 자신의 후손 아브라함이 체험하게 될 이 땅에서 임하게 되는 주의 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아담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도 왜 지상에 많은 법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율법의 존재는 이 세상에 것처럼 많은 죄가 있음을 증명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에 거하겠는가 반문한다.(XII 280~284) 이에 미카엘은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죄를 명시하고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보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데 있다고 대답한다.(XII 289~299)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은 인간 세상의 통치와 관련된 민간정의에 관한 것과 예정된 후손 즉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부수고 그에 의해 인류의 구원이 성취됨을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들에게 가르치려는 종교의식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한 것이다.(XII 230~235) 밀턴은 양과 염소에 의한 제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한다. 율법은 불완전한 것으로 때가 이르면 그림자 같은 모형에서 진리로 엄격한 율법의 부과에서 관대한 은총의 자리로 죄의 사슬에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율법은 불완전하게 나타나고, 단지
 때가 이르면 좀 더 나은 언약 앞에 그들을
 내어주기 위해서만 그것이 부여된다. 그때까지의 훈련은
 그림자같은 형체에서 진실로, 육으로부터 영으로,
 엄격한 율법의 부과로부터 풍부한 은혜의
 자유로운 받아들임으로, 노예의 공포로부터
 아들로, 율법의 과업으로부터 신앙의 일로 변한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다만 율법의 사역자에 불과하니
 저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없고,
 이방인 예수라 부르는 여호수아만이 그의 이름과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그는 곧 적인 뱀을 죽이고 세상의 황야를 거쳐
 오래 방황하는 인간을 영원한 안식의 낙원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갈 수 있는 자이다.

So law appears imperfect, and but giv'n
 With purpose to resign them in full time,
 Up to a better cov'nant disciplined
 From shadowy types to truth, from flesh to spirit,
 From imposition of strict laws, to free
 Acceptance of large grace, from servile fear
 To filial, works of law to works of faith.
 And therefore shall not Moses, though of God
 Highly beloved, being but the minister
 Of law, his people into Canaan lead;
 But Joshua whom the Gentiles Jesus call,
 His name and office bearing, who shall quell
 The adversary Serpent, and bring back
 Through the world's wilderness long wandered Man
 Safe to eternal Paradise of rest. (XII 300~314)

밀턴은 기독교인들은 의식적 율법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율법의 불완전성은 모세 자신에 의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율법의 모형인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었고 결국 여호수아(Joshua)가 이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여호수아는 예수(Jesus)와 같은 이름이며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율법의 불완전성은 그 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완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의 조건에 의해 정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적 힘과 공의가 자연과 옛 언약에 나타난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이것들에 추가하여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고 예비하시는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지니는 정당성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의해 변증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끝으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신다.

그러나 곧 부활하신다. '죽음'은 그에게 오랜 동안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사흘째의 여명이
 돌아오기 전에 셋별은 그가 여명처럼 새롭게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리라. 인간을
 죽음에서 되사시는 속량의 지불,
 인간을 대신하는 그의 죽음, 그 은혜를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신봉하는 자들은
 무시함 받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

But soon revives, Death over him no power
 Shall long usurp; ere the third dawning light
 Return, the stars of morn shall see him rise
 Out of his grave, fresh as the dawning light,
 Thy ransom paid, which man from Death redeems,
 His death for man, as many as offered life
 Neglect not, and benefit embrace

By faith not void of works: (XII 419~426)

사흘째의 여명이 돌아오기 전에 셋별들은 그리스도가 여명처럼 새롭게 무덤에서 일어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담이 미카엘을 통해 보게 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인간구원의 예표인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불의를 고발하여 저주를 가져오게 하는 서 인간저주를 모두여 저들곁에서 인간종말이 되셨다. 또한 전 인류인간죄를 감당해 스스로 죄인간값으로 죽음을 감수하여 속죄했으므로 우리로 의간죄이르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11권, 12권간종말오는 모든 고난에 대한 구원과 해방이요, 영혼의 회귀여명상승이다. 예수님의 무덤과 뻗어있자가에구

원받은 영혼은 속박에서 벗어 되자유로 충만 하나님있는 것이다. 밀턴은 『실낙원』 11권과 12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성의 산물로 부여의 죽음의 자유의지가에따른 그릇해 선택』 11권의 수님에도 불구하고a대한 구원과 해방이요해 죄에서 구원하여 주권, 그의 께서 이성의 권과 12소망 이춤』 1썌수님의 무덤과 뺨어있자가섭카엘을영원하, 인간을 다스리중말오는t부여의롭, 은 하심을 따른 그릇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해본 것 같이 『실낙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관한 밀턴의 견해는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미리 예지했으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겼다는 것이다. 아무도 미리 구원이나 멸망을 택하지 않았고 인간에게는 모두 구원의 기회가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탁월성 때문에 특별히 선발되어 진다고 생각했다. 아담의 타락은 혐오의 대상이지만 이 타락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성육과 구원은 없었을 것이다. 아담과 그 후손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여 타락전보다 더 영화롭고 은혜로운 상태로 들어 올려 인간회복을 달성하는 것이 이것이 밀턴이 제기한 악에서 선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정당함을 변증해 주는 원리이다. 밀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 순종하여 내세의 낙원과 내면적 낙원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하였으며, 『실낙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가 인간에게 정당하게 구현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Works Cited

- John Milton. *Paradise Lost*. ed. Meritt Y Hughes. (New York : The Odyssey Press, Inc., 1962).
- F.T. Prince, "On the Last two Books of *Paradise Lost*," *Milton's Epic Poetry*. ed. C. A. Patrides. (London : Penguin Books, 1967)
- Joseph H. Summers, "The Final Vision," *Milton : A Collecton of Critical Essays*. ed. Louis L. Martz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1966)

References

- 노이균. “『실락원』에 나타난 밀턴의 구원에 대한 예정론,” 『기독교와 어문학』 3권 1호, 2006.
- 조신권. 『청교도 신앙과 문학의 탐구』.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5.
- . 『청교도 애국시인 존 밀턴의 문학과 사상』.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02.
- 최종수, 『기독교문학 고전의 이해』. 서울: 현대지성사, 1997.

Bush, Douglas. "Paradise Lost in Our Time: Religious and Ethical Principles," *Modern Essays in Criticism*. ed. A. E. Baker. London: Oxford UP, 1970.

Corns, Thomas N, ed. *A Companion to Milton*.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3.

Dyson, A. E and Julian Lovelock, *Paradise Lost*, New York: Macmillan, 1982.

Ferry, A. D. *Milton's Epic Voice*. Cambridge: Harvard UP, 1967.

Frye, Northrop. *The Return of Eden: Five Essays on Milton's Epic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5.

Kermode, F, ed. *The Living Milton: Essays by Various Hand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0.

Kurth, B. O. *Milton and Christian Heroism*. L. A: Univ. of California, 1959.

Martz, L.L. (ed) *Milton :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6.

Miller, T. C., ed. *The Critical Response to John Milton's Paradise Lost*. Westport: Greenwood Publishing Group, 1997.

Milton, John. *Paradise Lost*. ed. Merritt Y Hughes. New York : The Odyssey Press, Inc., 1962.

Patrides, C. A. *Milton and Christian Tradition*. London: Oxford UP, 1966.

_____. *Milton*. London: Penguin Books, 1980.

Prince, F. T. "On the Last two Books of *Paradise Lost*," *Milton's Epic Poetry*. ed. C. A. Patrides. London: Penguin Books, 1967

Riggs, William G. "Poetry and Method in Milton's *Of Education*." *Studies in Philology* 89, 1992.

Rudrum, Alan, ed. *Milton*. London: Macmillan, 1969.

Summers, Joseph H. "The Final Vision," *Milton :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Louis L. Martz.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6

Wheat, L. *Philip Pullman's His dark materials --A Multiple Allegory: Attacking Religious Superstition in The lion, the witch, and the wardrobe and Paradise Lost*, Amherst, N.Y.: Prometheus Books, 2008.

Witt, Ronald G. "Medieval 'Ars dictaminis' and the beginnings of humanism: a new construction of the problem." *Renaissance Quarterly* 35. 1 Spring, 1982. 1-35.

Retrieved from "http://en.wikipedia.org/wiki/Of_Education"